

■ 침뜸의 대가 광주 광산 출신 구당 김남수 옹

# 한국침뜸 미국서도 통했다

한국의 정통 침뜸, 미국서도 통했다.

광주 광산 출신으로 한국 정통 침뜸의 대가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구당 김남수(94) 옹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학에서 암 환자 등 10여명을 치료했다. 미국인 환자들은 “침뜸을 받으니까 정말 편하고 고통이 없어졌다”며 침뜸의 효과에 감탄했다고 한다. 한의사와 의사들로 구성된 침사랑 모임까지 결성됐다.

## 美 의료진도 효과 인정

김남수 옹은 “서양의학은 무조건 자르고 도려내는 수술을 하는데 그게 한계다”며 “한국 전통 침뜸은 환부에 칼을 대지 않고 침과 뜸으로 인체 기와 혈을 운용시켜 치료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옹은 80여년간 침뜸으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 침뜸 열풍을 몰고 왔다. 제자들과 함께 아픈 이들을 찾아 봉사활동도 펼쳤다. 그럼에도 지난해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의 한 복판에 섰다. 이를 보다 못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지난 21일 일반인의 뜸 시술 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법’ 제정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상 뜸 시술 행위가 허용돼 있는 한의사나 구사가 아닌 사람도 뜸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일반인의 뜸 시술 허용 범위를 무료 봉사활동으로 제한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법안 발의는 사실 김 옹 때문에 비롯됐다. 서울시가 침사 자격증만 있는 김 옹이 뜸 진료행위까지 하는 것을 의료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9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김 옹이 이에 반발, 자격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김 옹은 선천에게서 침구학을 전수받아 11세 때부터 시술을 해왔다. 1943년 일제시대 때 우연히 침사자격증을 받았으며 6·25 전쟁 이후 서울로 올라와 침뜸 시술을 펼쳤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의료법이 바뀌면서 침구사 자격 제도가 폐지됐고 기존 침구사 면허를 가진 사람과 한의사만이 침과 뜸 시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제자들과 무료봉사 시술

하지만, 그는 “뜸사인 구사(灸士) 자격증이 없는 현실에서 침사(針士) 자격증으로 뜸을 놓는 건 당연하다”며 “침사와 구사는 수레의 두 바퀴라 한 바퀴를 부인하는 건 엉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그는 속뜸 효과에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호도 구당으로 삼았다. 구당은 “뜸은 인류가

존재하면서 시작된 자연적인 치료법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독특한 의학이 아니다”며 “나를 둘러싸고 행정행위를 통해서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들의 치료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김춘진의원 합법화 추진

물론, 한의사들은 뜸은 의료인의 진단 없이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위험한 치료 방법이라며 구당과는 상반된 입장으로 보이고 있다.

구당은 침뜸의 대가다. 위암으로 투병 중인 텔런트 장진영을 침술과 뜸으로 치료하고 있고 김영삼 전 대통령, 소설가 조정래, 시인 김지하, 김윤철 전 감사원장, 방송인 송해, 고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도 그의 환자였다. 수영선수 박태환도 발바닥 티눈 제거를 위해 뜸을 치료받았다.

김 옹은 특히 부작용이 없는 뜸을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자 육성에 힘을 기울였고 제자들은 한국뜸사랑봉사를 꾸려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4천여명이 활동 중이다. 최근 화마를 입은 창녕에 봉사활동을 다녀왔고 지난 22일부턴 침뜸의 합법화를 위한 국회 침뜸 봉사시술도 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국 정통 침뜸의 명의로 화제를 모은 구당 김남수(94)옹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채프먼대에서 건강강좌를 한 후 미국인 교수를 상대로 침뜸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나원침 (7740) 김중두



## ‘수뢰’ 배기선 전 의원 징역 3년6개월 확정

수뢰 혐의로 기소된 배기선(59)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광고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배 전 의원은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던 2004년 2월 광고물업자 박모씨로부터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비를 연중해준 대가로 5천만원을 받고 이상국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채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 ‘대포차’ 555대 목포서도 적발

### 광주지검 목포지청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7일 중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매매상사의 명의로 이전·등록하는 속칭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한 이모(40)씨를 공판지기특정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목포에 A구역이라는 자동차 매매상사를 차린 뒤 이 매매상사 이름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2개월여에 걸쳐 555대의 대포차를 만들어 낸 혐의다. 이씨는 차량 1대당 2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1억1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전국의 상대로 영업한 점으로 미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목포=이상규기자 lsh@

## 20대 산모 세 쌍둥이 출산 ‘경사’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전국에서 자연분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광주의 한 병원에서 20대 산모가 세 쌍둥이를 낳아 화제.

○27일 에덴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김소정(여·27·광주시 남구 봉선동)씨가 제왕절개 수술 끝에 1분 간격으로 딸 둘과 아들을 건강하게 출산.

○수술을 집도한 허 정 대표원장은 “자연임신으로 출산한 세 쌍둥이의 몸무게는 각각 2.2kg, 1.86kg, 2.16kg으로 정상이고, 아주 건강하다”며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거저 귀 등도 선물할 계획”이라며 흐트. ○에덴병원 관계자는 “세 쌍둥이 출산은 100만명 가운데 1명이 탄생할 정도로 극히 드문 일”이라며 “에덴병원에서는 1995년과 2006년에 이어 세 번째 경사”라고 자축.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사교육비 20조9,000억

교육 개혁 내건 MB정부 첫해, 전년보다 4.3% ↑



## 故 권철수 선생 등 3명 포상

광주지방보훈청은 제90회 3·1절을 맞아故 권철수 선생 등 독립운동가 3명을 포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제 강점기에 전북 김제 등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으로 체포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옥중에서 사망한故 권철수 선생은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는다. 또한 함평에서 3·1운동 1주년을 기념한 독립만세 운동으로 체포돼 징역 6월을 선고받은故 모순기 선생과 태평양 전경에서 일본이 패하고 있다는 소식을 널리 알리다 체포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故 이치홍 선생은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대혼란

‘현재 교특법 위헌 결정’...경찰청 유보 지시

광주·전남, 명확한 기준 없어 사실상 마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광주·전남 경찰이 사고처리 유보 대상 등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27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26일 오후 경찰청으로부터 ‘중상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송치를 유보하라’는 지침이 하달됐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의 각종 교통사고 처리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 현재로서는 ‘중상해자’나 ‘형사처벌 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의 업무 처리에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전체 6~8주가 중상해로 여겨지는 통념을 고려해 전치 3주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반면 전남경찰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보험과 관련된 사고를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전면 유보하도록 했다. 대부분 사고 처리가 사실상 멈춰선 셈이다.

또 26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급적용 여부도 교통사고 처리에 적잖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찰은

‘중상해자’나 ‘소급적용 여부’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의 신병확보 등에도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 교통사고 가해자는 ‘현행법’이 아닌 ‘과실법’으로 분류돼 48시간 동안 구금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보험 가입자는 피해자가 숨지거나 위독하지만 않으면 불기소됐다.

하지만 전남 현재가 위헌 결정 이후부터는 중상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한편 대검찰청은 27일 ‘중상해’ 사고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처리를 유보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처리 지침을 완성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

# 월출산 새길 전면 통제

내달 2일부터 4월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 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월출산 국립공원 내 정구 탐방로를 제외한 새길 등을 전면 통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원사무소는 이 기간 ‘산불 집중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휴연, 인화물질 반입, 불법 취사, 모닥불이나 논두렁 소각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공원 관계자는 “출입금지 위반 시 50만원,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행위 시 20만~60만원의 과태료가

## 월출산 국립공원 정구 탐방로



각각 부과된다”면서 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 부음

▲임남금씨 별세 상호(前한국도로공사)·현재(서부경찰서 팀장)·명재(전대병원 원무과장)·홍재(IBK증권 부사장)·진숙·재순·명주·은희씨 부친상 강의원(前 광산구청)·김무신(우혁코지사장)·최재열(교보생명 호남지원 단장)씨 부부상=발인 28일(토) 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20-6983.

▲박이순씨 별세 상복·상열·상채·상천·정례·상례·상임씨 모친상=발인 28일(토)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062-250-4409.

▲서광수씨 별세 용성·유경·유정씨 부친상=발인 28일(토) 학동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383.

▲박만동씨 별세 재양·재강·재수·민정·주란씨 부친상=발인 28일(토) 학동금호장례식장 501호. 062-227-4010.

▲정대천씨 별세 명근·석근·혜숙씨 부친상=발인 28일(토) 학동금호장례식장 102호. 062-227-4444.

# 동구 ‘주민대화’ 자전거 투어 마쳐

## 생활민원 직접 챙겨 호평

광주시 동구가 지난 5일부터 시작한 ‘자전거를 이용한 동 순방’이 27일 지원 2동 주민과의 대화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총장동을 비롯한 13개 동을 간부들과 함께 자전거로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유대명 청장은 동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상점 간판을 가리는 나뭇가지를 자른 것은 물론 냄새가 심한 하수

구를 보수하는 등 ‘소소한 생활민원까지 꼼꼼히 챙겼다’는 주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한 동 순방은 민생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서민생활 보호대책을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며 “동 순방에서 논의된 주민숙원사업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생활공감, 현장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4분 / 해질 18시 27분 / 달뜨기 08시 18분 / 달지기 21시 48분

겨울 옷은 서랍 속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광주	맑은 뒤 흐림	1/12C
목포	맑은 뒤 흐림	1/9C
여수	구름 많음	5/11C
완도	맑은 뒤 흐림	1/11C
구례	구름 많음	-2/14C
매곡	맑은 뒤 흐림	-1/11C
장흥	맑은 뒤 흐림	-1/12C
고흥	구름 많음	2/13C
순천	구름 많음	1/14C
영광	맑은 뒤 흐림	-1/10C
진도	맑은 뒤 흐림	0/11C
전주	맑은 뒤 흐림	-2/11C
남원	맑은 뒤 흐림	-2/12C
옥산도	맑은 뒤 흐림	3/6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목포 04:09	09:19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목포 16:21	21:3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여수 10:57	04:42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여수 23:23	17:01

◇주간 날씨

가상내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1(일)	2(월)	3(화)	4(수)	5(목)	6(금)
날씨						
최저/최고	1/13	-1/11	1/7	1/10	2/11	2/12